

우리가 상상한 미래

2조 / 이예준, 김민교, 김보정, 박준영, Islombek



1. 반중력 장치

반중력 기술을 통해 건물들이 공중에 떠 있는 구조로 재편되어, 토지와 건축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다. 지표면은 녹지와 태양광 패널로 덮여 생태 복원과 에너지 생산의 기반이 되며, 공중에는 AI 교통 시스템이 관리하는 반중력 이동수단들이 자유롭게 떠다니며 교통 정체 없는 도시를 구현한다.

2. 디지털바이오 시대

신경계와 연결된 뇌파 제어 기술을 통해 인간은 전자기기를 직접 조작하고 증강된 시각 정보를 활용한다. 생체 데이터는 AI 클라우드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 관리되며, 업무와 회의는 완전감각형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등 인간의 정체성과 생활 방식이 디지털과 생물학의 융합 속에서 새롭게 재편된다.

스마트 수면 시스템은 AI와 센서가 심박수, 뇌파, 수면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꿈 분석 및 수면 중 학습·치료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로, 인간의 생리적 과정이 인공지능에 의해 관리되는 미래형 생활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수면 보조를 넘어, 인간의 의식과 신체 회복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삶의 질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기능성 스마트 의류는 체온과 심박수 등 생체 정보를 감지하고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입는 센서'로, 인간의 신체가 데이터와 연결된 확장형 플랫폼으로 변화했음을 상징한다. 이 기술은 개인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건강을 관리하고, 상황에 따라 의류가 스스로 적응함으로써 신체와 기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AI 기억 보조 시스템은 시각·청각 정보를 자동 저장하고 분류·복원하는 기술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인공지능을 통해 축적·재구성되는 디지털 기억 확장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인간의 두뇌 기능 일부가 외부로 이전되어, 기억의 한계를 초월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인지 환경을 제시한다.

디지털 자아 분신은 본체가 여가를 즐기는 동안 가상 분신이 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물리적 신체와 디지털 존재가 분리되어 동시에 활동하는 새로운 인간 정체성의 등장을 시사한다. 이는 인간이 물리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여러 형태의 '나'로서 병렬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다.

김민교 :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 나는 공중 도시 속에서 반중력 장치를 이용해 자유롭게 이동하며, AI 브레인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편리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다. 또한 디지털바이오 기술로 건강과 감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 같다. 이 활동을 통해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넓히고 더욱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음을 느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깨달았다.

박준영 : 디지털 자아 분신을 통해 동시에 일처리를 하거나 일이 진행됨과 동시에 휴식을 취해 효율을 높일 것 같다. 하지만 한 명이 동시에 일처리를 할 수 있음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경쟁이 중요시되는 세계가 될 것 같다. 개인능력을 향상해 누군가에게 대체되지 않아야겠다 느꼈다.

Islombek : 미래의 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 같다고 느꼈다. 공중 도시와 AI 브레인 클라우드를 통해 사람들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원하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감정과 소통도 함께 발전해야 진정한 미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예준 : 미래의 나는 물리적인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살아가고 있다. 디지털 분신이 나 대신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나는 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여가를 즐긴다. 분신은 나의 사고 패턴과 작업 습관을 학습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개입하거나 조율한다. 이렇게 일과 삶 사이의 경계를 오고가며, 진정한 워라밸이 실현된 미래 속에서 나는 자유롭게 살 것이다.